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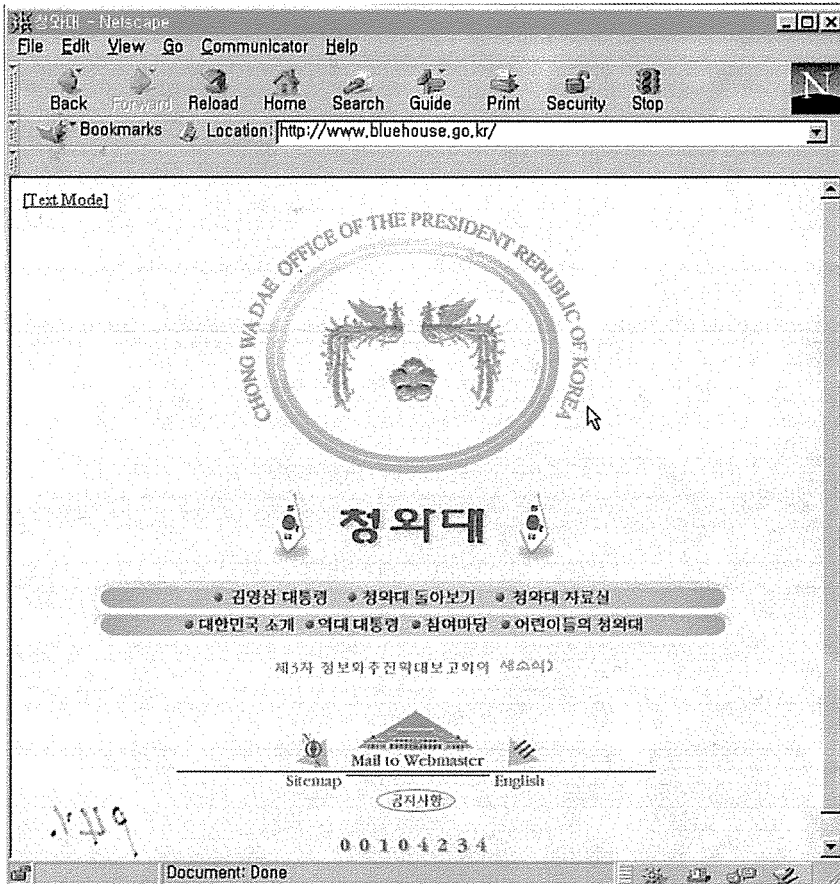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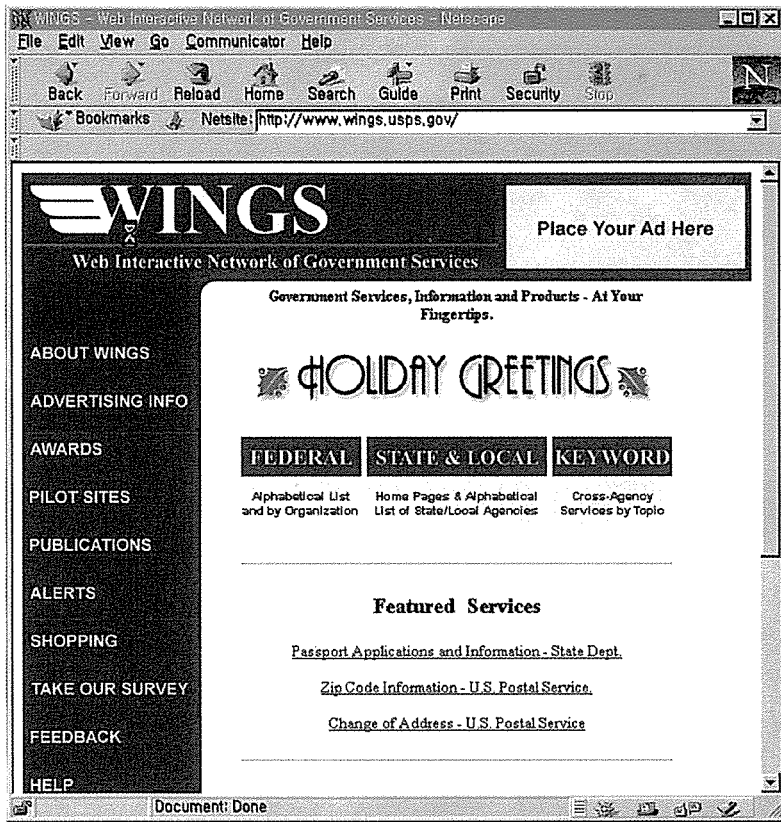
### 주요국가 정부소개 홈 페이지

이번 호에서는 세계 여러 주요 국가 정부를 소개하는 홈 페이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청와대” (<http://www.bluehouse.go.kr/>)로 가면 아래와 같은 깨끗한 이미지의 홈 페이지가 나오는데, 좀더 빠른 전송속도를 위한 ‘Text Mode’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위해서도 ‘English’로 된 화면 제공이 가능하다. 먼저 ‘청와대 돌아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에 자리를 잡고 있는 청와대의 약도가 디스플레이된다. 약 7만6천평의 부지에 대통령 집무실, 관저, 비서실, 경호실 등이 있으며 각 건물에 대한 설명 및 역사는 그 이름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어린

이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페이지도 있는데 ‘어린이들의 청와대’가 바로 그 곳이다. 어린이들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한 ‘대통령의 하루’ 그리고 ‘나의 사랑’이라는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다. 다음은 미국 60개 부처 통합 네트워크 홈 페이지 “WINGS - Web Interactive Network of Government Services” (<http://www.wings.usps.gov/>)를 소개하겠다. 미국 내에 존재하는 여러 행정 조직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놓은 곳으로 ‘Federal’, ‘State & Local’ 그리고 ‘Keyword’로 크게 구분되어 있다. 먼저 ‘Federal’을 선택하고 들어가면 Alphabetic list로 Government 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하단에는 우리들 눈에 익은 ‘The White House’도 나온다. ‘State & Local’을 클릭하면 ‘Alabama’로 시작하는 약 48개 주에 대한 홈페이지 링크가 디스플레이되고 ‘Keyword’에서는 주제별로 잘 정리된 정부 기관들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있다. 이제 캥거루로 유명한 나라, 호주의 정부 홈 페이지 “Australian Government Home Page” (<http://gov.info.au/>)로 가보자. 첫 화면은 역시 호주의 명물 캥거루로 장식되어 있고 ‘New’, ‘Contents’, ‘Info’,





‘Dept.’, 그리고 ‘Agencies’ 5 Part의 구성이다. 세계 주요 국가 행정부에 대한 홈페이지는 이외에도 관련 사이트의 링크들로 구성된 “정부관련 사이트” (<http://www.haas.co.kr/Education/internet/address/gover.htm/>)와 영국정부 홈페이지 “CCTA Government Information Service” (<http://www.open.gov.uk/>), 캐나다정부 홈페이지 “Government of Canada Primary Internet Site (Canada Site) - Contents” ([http://canada.gc.ca/main\\_e.html/](http://canada.gc.ca/main_e.html/)), 그리고 헝가리 총리관저 홈페이지 “Prime Minister’s Office, Hungary” (<http://www.meh.hu/>) 등이 있다.



### 청소년 휴대폰사용 억제 세 서비스

청소년들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한달 통화료가 1만엔(약 8만5천원)이 넘으면 더 이상 전화가 걸리지 않는 휴대전화서비스가 일본에 도입된다. 일본의 개인휴대통신(PCS:일본에선 PHS)회사인 DDI포켓그룹은 최근 ‘세이프티 플랜(절약계획) 서비스’란 이름의 서비스를 내년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 가입자는 통화료가 1만엔을 넘으면 비상·구급용 외에는 전화를 걸 수 없으며 받을 수만 있게 된다. 통화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통신회사가 이처럼 통신요금에 상한선을 두게된 것은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들의 PCS이용료

가 너무 많아 견디다 못한 부모들이 통신회사에 대해 마련을 호소한 결과다. 1만엔이 넘어 발신통화가 끊길 경우 성인은 언제든지 통화재개를 요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DDI포켓그룹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등 젊은이의 PCS이용률은 전체 이용금액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전체 이용객의 1인당 월평균 사용액은 2천5백엔 정도지만 1만엔 이상 쓰는 사람도 전체의 10%를 넘는다. 이처럼 장시간 통화를 하는 사람들중 상당수가 청소년들이며 이들은 주로 밤늦은 시간에 호젓한 분위기에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통화가 마냥 길어진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 97년도 PC게임 베스트 10

게임공급업체 및 유통업체들에 따르면 97년도 국내 최고의 히트게임은 약 9만개가 판매된 'C&C레드얼럿'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시물레이션의 대가 웨스트우드사가 내놓은 C&C시리즈는 지난 95년 하반기 국내에 선보인 이후 동서 게임채널 유통라인을 통해 지금까지 총 20여만개의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게임시리즈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한 작품은 일본 고에이사의 전략시물레이션 '삼국지5'이다. 이 작품은 지난해 '삼국지4'와 '삼국지공명전'에 이어 올해 8만여개의 빅 히트를 기록함으로써 C&C의 명성을 위협하

97년도 PC게임 판매순위

순 위	제 품 명	장 르	제 작 사	비 고
1위	C&C레드얼럿	전략	웨스트우드	미국
2위	삼국지5	전략	고에이	일본
3위	창세기전2	RPG	소프트맥스	한국
	NBA97	스포츠	E. A	미국
5위	디아블로	액션	블리자드	미국
6위	대항해시대3	전략	고에이	일본
7위	버추얼파이터2	아케이드	세가	일본
8위	레이맨플러스	액션	UBI	프랑스
	캠퍼서러브스토리	연애	남일소프트	한국
10위	붉은악마	스포츠	안코, 미디어소프트	공동개발

고 있다. 이어 국산게임의 자존심을 지킨 소프트맥스사의 '창세기전2'와 스포츠게임 왕국 E.A사가 내놓은 농구게임 'NBA시리즈 97년'이 각각 5만개로 3위를 차지했다. 이중 '창세기전2'는 국산게임 개발의 주류인 RPG장르를 대표할만한 게임으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다. 개발사인 소프트맥스사는 지난 해 최고의 국산게임으로 꼽혔던 '창세기전'의 인기가 후속편까지 이어짐에 따라 히트게임 개발의 산실로 주목받게 됐다.

97년도 세계적으로 RPG 르네상을 불러온 블리자드사의 '디아블로'는 국내에서도 게임 동호회들이 추천하는 최고의 게임중 하나로 손꼽혔으나 정품보다 많은 불법 복제품이 범람해 실제 국내 판매수량은 3만개에 머물러 체감인기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6위에 오른 고에이사의 전략시물레이션 '대항해시대3'역시 발매 초기 열성팬들이 용산 등지의 게임숍에 줄을 서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으나 뒷심이 달려 2만5천개의 판매에 그친 작품, 아케이드 게임인 세가사의 '버추얼파이터2' 역시 가정용 게임기 분야의 명성에

못미치는 2만개로 7위에 머물렀다. 약 1만8천여개가 팔린 '레이맨플러스'는 주인공의 귀여운 캐릭터로 인기를 모았고 동물 8위를 기록한 남일소프트의 '캠퍼서러브스토리'도 연애시물레이션이라는 장르를 개척해 신세대 게이머들의 호응을 얻었다. 월드컵 열풍에 힘입어 10위를 차지한 미디어소프트사의 '붉은악마'는 1만5천개가 팔려나갔다. 97년은 외산 전략시물레이션(Simulation)대작들이 시장호름을 주도한 가운데 다양한 장르의 국산게임이 선전(善戰)을 한 해였다.

### 전자사보 S/W '사보매니저'

IMF한파로 경비절감차원에서 사보를 없애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웬만한 대기업의 경우 사보를 제작하는데 평균 1천만원 가량이 들어가는 등 비용이 만만치 않다. 다존기술은 이런 점에 착안해 기존 사보를 인터넷상의 전자사보로 바꿔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사보매니저'를 개발, 시판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인터넷을 잘 모르는 홍보실 직원이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1만명 이상 대기업에서도 무리없이 동작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다존기술은 설명한다. 특히 그래프를 이용해 각종 사용현황, 조회현황 등의 통계자료를 즉각 얻을 수 있다. 또 사보내용을 읽고 감상문을 직원들에게 바로 받거나 앙케이트조사 등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사보관리자는 인터넷 게시판을 마음대로 만들어 사원들의 목소리가 즉각 반영되는 살아있는 사보를 만들 수도 있다. 다존기술 사장(강운종)은 “사보매니저를 통해 비용절감은 물론, 사내의 의견이나 공지사항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다존기술측은 사보매니저를 이용한 전자사보의 초기 구축비용을 약 2천만원선으로 잡고 있다.

### 스캐닝 영한사전 ‘퀵서너리’

영어잡지나 신문을 읽으면서 툭툭 튀어나오는 어려운 단어들 때문에 고민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귀찮아서 그냥 지나가다 보면 문장의 정확한 뜻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고민을 지닌 사람들을 위한 독특한 아이디어제품이 나왔다. 동인시스템은 모르는 단어를 형광펜으로 마킹하듯이 굵기만 하면 액정화면에 영어단어해석이 나오는 ‘퀵서너리’를 최근 내놓았다. 펜 모양으로 생긴 이 제품은 높은 인식성 공률과 함께 32만 단어를 지닌 사전으로 영문소설, 잡지, 신문 등을 읽는데 큰 도움을 준다. 스캐너 어

려운 상태에서는 키로 입력하거나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옴티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줄 끝에 걸려 하이픈으로 끊긴 단어도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서 스캔하면 내장된 소프트웨어가 이를 결합, 한 단어로 인식해주는 기능도 지니고 있다. 또 조회한 단어를 다시 찾는 기능, 명암조절, 건전지 용량확인기능 등이 내장되어 있다.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제품이며 한글사전 소프트웨어는 국내에서 개발했다. 가격은 24만2천원.

### 한국통신, 시티폰 低價型 기지국 공급

한국통신은 시티폰 서비스의 확대와 투자비 절감을 위해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 커버리지를 넓힐 수 있는 저가형 기지국 설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국통신 무선사업본부는 시티폰 서비스의 통화가능지역 확대를 위해 삼성전자, 삼우통신 등 시티폰 기지국 공급업체들과 협력, 기존 시티폰 기지국의 설치비용을 5분의 1 정도로 줄인 1백만원대의 저가형 기지국을 개발하고 약 3천대 정도를 공급,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지국 공급업체들이 최근 개발한 저가형 기지국은 기존 기지국이 6회선까지 수용토록 만들어진 데 비해 2회선만 이용할 수 있도록 용량을 줄이고, 실내용으로 적합하도록 온도 특성 등을 완화해 원가를 대폭 줄인 제품이다. 이에 따라 인구밀집도가 그리 높지 않은 소규모 지하공간이나 상가 등에 설치해 시티폰의 전파음영지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통신 무선사업본부 한 관계자는 “지역 전국을 통해 전국에 걸친 저가형 기지국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장 필요한 곳이 1천5백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초기에는 한국통신이 직접 설치하고 점차 공중전화처럼 자급제 형식으로 수요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물 내에서도 시티폰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통신기기제조업체인 삼우통신공업은 최근 프랑스 낫소사와 건물내 통화가 가능한 실내용 시티폰기지국 장비 상용화에 성공하여 양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시티폰전파음영지역이 크게 감소, 통화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통신은 삼우통신공업과 서울시내 백화점, 전시장, 상가, 대형건물 등 인구밀집지역 실내에 이 장비를 설치기로 합의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원하는 건물주에게 1백만원선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실내용 기지국을 설치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통화료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수료는 통화료의 5% 내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개발된 실내용 시티폰기지국은 출력 10mW, 통화거리 50~250m로, 성능면에서 실외용과 큰 차이가 없으며 1개 기지국은 대략 2개층을 커버할 수 있다. 무게는 실외용 12Kg보다 훨씬 가벼운 1.8Kg대. 실내용 기지국은 시티폰단말기의 전파를 수신해 이를 집중장치로 보내 한국통신의 전화망에 연결시켜준다. ㉟